

마음 다루기

## 무심無心の 단계에 대하여(2부)

| 월인 |

이 글은 2019년 7월 28일 제20차 백일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강연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무심(빈 마음)을 경험하였지만 뭔가 여전히 답답하다고 느껴진다면 무심의 경험세계인 네 가지 무색계의 어딘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이며 거기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 무심의 세계에 들어서다



〈그림 18〉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무심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무심의 세계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나와 대상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념정정(思念靜靜), 생각이 맑고 고요해지는 상태입니다.

드디어 여기서부터 마음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느낌들은 마음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마음에 나



〈그림 19〉

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느낌으로든 생각으로든 무엇으로든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합창했을 때는, 소리는 있지만 마음의 내용은 없는 상태였어요. 내가 사라지면 경험되는 내용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인 '대상'과 그 내용을 경험하는 '나'는 동시에 서로에게 의존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자를 두드리며) 이 소리는 탁자의 소리입니까, 손이 내는 소리입니까? 탁자와 손이 같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탁자를 두드리며) 이 소리가 꼭 탁자의 소리는 아니죠. (탁자의 다른 부분을 두드리며) 이런 소리가 나죠. (탁자의 또 다른 부분을 두드리며) 저런 소리도 나듯이, 탁자는 결코 어

느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딪치는 주체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대상의 소리는 달라지고 따라서 소리는 대상과 주체 간의 관계이고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도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빈마음이 경험된다.  
오직 한마음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공처이다.

그런데 이 공처는 경험된다.  
그래서 경험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경험되는 '앎에 속하는 것이다.  
경험된다는 것은 일종의 '느낌이다'.  
손을 탁자에 대면 거기 일종의 느낌이 있다. 이 느낌이 바로 '앎'이다.  
또 앎이란 일종의 느낌이다. 근경식에서 '식'에 해당하는 것이 느낌이며 앎이다.  
그래서 공처 역시 텅빈 경험, 텅빈 느낌이므로 일종의 '앎'이다.  
그래서 공의 경험은 식에 기반을 둔다고 한다.  
손을 탁자에 대고 거기에 깊이 몰입하면 거기 오직 '느낌'만 있다.  
빈마음에 집중하면 오직 '비어있음'만이 있다.  
일종의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은 '앎'이다.

〈그림 20〉

그런 마음의 느낌인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면 드디어 빈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99%가 잔잔한 바다처럼 되어 버려요. 그러나 1%가 남아있어요. 마음의 내용으로써의 나는 없지만 그 텅빔을 '경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텅 빈 공소함을 경험하는 그 놈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험하는 놈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개별적인 놈은 마음의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경험하는 그 놈은 개인성이라기보다는 경험하는 기능, 주체라는 마음의 기능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 “내가 할 거야”, “이건 나야”, “내 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도 아이들은 경험하고 분별하죠. 그때는 개별성이 없지만 분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그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대상을 구분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텅 빔을 경험하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내용으로써의 대상은 없어졌어요. 내용은 없지만 마지막 남은 대상인 텅 빔이 있고, 그 텅 빔이라는 내용을 경험하는, ‘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체는 개별적이지 않아요.

오른손을 들어서 손바닥을 한 번 보세요. 손바닥을 잘 살펴보면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한두 가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으려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모두들 손바닥을 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음) 오케이. 스톱. 안 찾아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찾으려고 주의를 모았죠. 손바닥을 쳐다보면서 찾으려고 아주 ‘투명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관심을 기울인 그 마음은 ‘나’라는 누군가가, ‘오영순’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기울인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보는 기능. 보는 그것은 어릴 때의 ‘나’도 아니고 지금의 나도 아니고 어제의 나도 아니고 그저 ‘보는 기능’으로써의 나였을 겁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거나 기준을 찾고 있었다면 마음의 내용이 있었겠지만 끝없이 그냥 순수하게 보고 있었다면 그 상태가 바로 보는 기능으로서의 ‘주체’만 있는 상태, 개별적이지 않은 마음의 기능만 있는 상태, 뭔가를 보는 기능만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그것을 ‘깨어있기’에서는 주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와 주체감을 구분합니다. 주체감은 ‘내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다 ‘내가 앉아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능인 ‘주체’가 ‘나라고 느껴지는’ ‘주체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히 전달됐나요? 주체와 주체감은 다르

다는 거예요. 주체감은 경험되는 주체에요. 주체는 경험되지 않는 주체이며 오직 경험만 하는 놈이예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이게 내무상외현색의 상태죠(그림21). 밖에 분별되는 대상은 있는 상태. 분별되는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 파도를 보고 있는 자는 없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보고 있는 ‘자기’가 마음에 생겨난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죠? 그럼 이 순간 여기(그림 21)에 파도 타는 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파도를 볼 때는 보는 놈이 안 느껴졌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보는 놈은 ‘주체감 + 내용’이고, 맨 처음에 이 파도를 보고 파도로서 그냥 인식이 됐을 때는 보는 놈이 ‘안 느껴진’ 그냥 파도만 인식하는 ‘주체’였다는 겁니다. 그 파도가 이렇게(그림22) 강렬하기도 하고(분별은 되니까요), 고요해지기도 합니다(그림23).

이제 자기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마음은 점차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파도는 바깥의 사물에 공명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파도치는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점차 마음의 파도는 가라앉게 되어있어요. 대상을 볼 때 대상에 따라 춤추기 때문에 파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결코 춤추지 않거든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마지막에 파도는 가라앉아요. ‘나’라는 느낌이 있는 파도에서, ‘나’라는 느낌이 없는 파도로, 그리고 다시 고요한 파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래서 다시 이 상태가 됩니다(그림24). 이 상태는 텅 비지만 텅 빔을 느끼는 자가 있어요. 이 스크린이 내 마음의 스크린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스크린 안에 텅 빔, 고요함을 느끼는 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을 느끼는 자는 누구지?’ 하고 이 친구(나 자신)를 들여다보면, 이 놈이 점차 사라져요(그림25). 그러면서 점차점차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상태가 됐다가, 드디어 이렇게 보는 놈 자체가 텅 비어 버리죠(그림26). 그리고는 이렇게 사라집니다(그림27). 그래도 마음은 텅 빈 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누가 느끼겠어요? 이 스크린 밖에 있는 자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스크린 속에 ‘나타나 있는 것’ 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의 스크린 안에 있는 것만 경험합니다. 아무리 고요해도 마음의 스크린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할 때는 당연히, 그것을 경험하는 놈이 스크린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크린 밖에 있는 놈은 보이지 않아요. 이 순간 텅 빔을 경험하고 있는 진짜 주체는 결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텅 빔이 느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뭔가 경험하는 주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텅 빔을 경험할 때는 이미 개인성은 사라졌습니다. 개별성은 마음의 ‘내용들이 다룰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텅 빔이라는 의식은 ‘분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텅 빔을 경험하는 스크린 밖에 있는 놈도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보는 기능입니다. 보는 기능이

텅 빔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하는 기능도 넘어서, 스크린 밖에 있는 놈이 없다면 스크린의 텅 빔은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그림 28〉

바로 이와 같아요(그림28).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요함마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비상비비상처非相非非相處라고 합니다. 상相과 상相이 아님도 없는 상태, 있음

과 없음마저 넘어간 상태. 텅 빔은 여전히 있음이나 없음이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라면, 비상비비상처非相非非相處는 텅 빔도 텅 비지않음도 결코 경험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저 알 수 없는 미지未知, 미지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미지未知는 안다는 것의 대비되는 미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미지未知, 말로 할 수 없어서 그저 이름 붙인 미지未知일 뿐입니다.

이것이 한 번 경험되면 (이것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채지는 것이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것 또한 마음의 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스크린 밖의 주체마저도 사라진 그때, 있음과 없음을 넘어가게 됩니다.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사실, 이 스크린 원판은 언제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그림들이 느껴지고 경험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스크린 원판이 있죠. 말로 하자니 있다는 겁니다. 있고 없음을 넘어갔는데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경험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이자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드디어 이 거친 파도 아래 텅 비어있음이, 경험되지 않는 비상비비상처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 안에 파도를 잘 타는 놈이 있어도 괜찮고, 못 타서 물에 빠지는 놈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어떤 것에도 동일시되지 않아요. 나는 저 원판에 자리잡고 있습니

다. 원판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나’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죠, 개별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미묘한 표현입니다. 미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동일시된 상태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상태. 그것은 상태도 아닙니다. 상태는 이랬다저랬다 바뀌지만 그것은 상태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고요한 파도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잘 타도 우쭐하지 않고 물에 빠져도 비굴하지 않고 누가 나를 배신해도 괜찮고, 충성해도 괜찮은 겁니다. 핵심은 비상비비상, 멸진정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텅 비어야만 그래서 일상에서도 백치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인식하면 화는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화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멋지게 타지만, 화의 파도를 타는 그 놈이 나는 아닙니다. ‘멋지게 타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며 ‘화를 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역시 파도 타는 놈과 동일시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는 그 어떤 마음의 경험 되는 것로부터 벗어나있다는 것이 철저히되면, 그 어떤 추구와 어려움과 고통, 즐거움도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과 슬픔은 팔해탈의 과정 중에서 육계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말이죠. 그런데 육계를 떠나면 기쁨과 슬픔을 떠난 미묘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선정의 기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미묘한 기쁨이고 더 오래가는 기쁨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기쁨마저도 없는 기쁨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 즉, 보이는 주객에서 - 색계
- 보이는 주가 사라지고, - 공처
  - 객만 있다가
  - (相의 세계이기 때문에 객만 있을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주 때문에 객이 존재할 수 있다)
- (텅빈) 객이 있다는 것은
  - 식처(비어있음을 안다-비어있음이지만 여전히 '있다'는 느낌의 세계-경험되는 공)
  - 보이지 않는 주가 있음을 알아채고
- 보이지 않는 주객으로 옮겨와
  - 여기서 가장 어려운 탐구가 시작된다
  - 그 주객에 대해 탐구하니 그 비어있음의 느낌은 느낌마저도 없는 것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다 - 무소유처
- 그것을 알아차리니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연하여 존재한다는 것, 즉 의존적인 허구임을 알아채고
  - 그것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 비상비비상처

〈그림 29〉

첫째, 내 마음에 '경험되고 보이는' 주객에서(색계),  
 둘째, 보이는 주체가 사라집니다. 보이는 주체는 주체감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느껴지는 마음, '내'가 느껴진다면, 그 '느껴지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와 닿죠?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보이는' 주체의 감이 사라지면 공처입니다. 이때는 객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객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객은 항상 주체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객만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비어있음을 아는 스크린 밖에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객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아채게 되면, 드디어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일반적인 마음은 '경험되는 나(주체감)'라는 것이 마음의 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되는 '나'가 자기라고 여기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과 동일시되어 주인공을 자기처럼 느끼듯이, 마음의 그림에서 '내가 여기 앉아있어,'라고 느끼는 그 나와 동일시되어 있을 뿐입

니다. 그러다가 경험되는 ‘나’는 마음의 그림 중 일부임을 알게 되면, 마음의 그림 속에서 한 발 물러난 ‘주체’로 옮겨옵니다. 그렇다고 주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가 되면 텅 빈 객만 남고 주체는 안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면 드디어 텅 비어있지만 텅 빔을 경험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운 일이 시작됩니다. 가장 어려운 탐구가 바로 여깁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체’를 발견하는 것. 보이지 않는 데 어떻게 탐구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체’와 그것이 경험하는 ‘텅 빔’이라는 ‘객’을 탐구해보니 그 비어있음의 ‘느낌’은 ‘느낌마저도 없는 것’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무소유처’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연하여 존재한다는 것, 의존적인 허구임을 알아차리면 그것마저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비상비비상 처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물 하나를 바라보세요. 경험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책상이나 프로젝트, 뭔가를 보세요. 보면서 그 ‘대상을 보는 나’가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이것이 ‘색계의 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서 그 프로젝트를 치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보면 당연히 마음에 프로젝트가 떠오르죠. 그것을 없애는 연습이 감지, 감각연습이었습니다. 깨어있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연습의 의미를 알 것이고, 그 연습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내 마음에서 ‘보이는 프로젝트’를 치워버리면, 즉 외부의 프로젝트를 보는 내 마음의 상에서 힘을 빼버리면 프로젝트가 안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만’ ‘마음에는 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처空處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대상이 텅 비어 있을 때, 그 상태에서도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앎’입니다, ‘내가 있다’는 앎. 그것이 식처識處입니다. 그 앎은 ‘없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무소유처無所有處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나한테 앎이 있다는 것, 앎이든 무엇이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없음’이 없으면 ‘있다’라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을 알면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있음과 없음’으로부터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그림 30〉



〈그림 31〉



〈그림 32〉

(그림30) 색계, 내 마음에 주인공이 있어요, 삶이라는 파도가 있고 내 마음에 파도를 타면서 어렵고 쉽고, 재밌게 느낍니다. (그림31) 그 다음 마음속 ‘내’가 사라집니다. ‘경험되는 내’가 사라집니다. 파도의 어려움과 쉬움도 없어집니다. 그저 거친 파도와 잔잔한 파도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역시 내가 느끼니까 거칠다고 느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언어라는 모든 표현은 나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칠다, 잔잔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거칠다고 알지 않겠어요? 이 상태는 거친 파도가 있지만 거친 파도에 힘들어하는 나는 없어요. (그림32) 거친 파도와 고요한 파도를 살펴보면 파도가 잔잔해져요. 더 이상 이 안에 ‘나’는 없어요. 나는, 주인공은, 감각 상태로 오면서부터 사라졌어요. 감각만, 거친 파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거침을 탐구하다보면 파도 자체가 잔잔해집니다. 마음의 그림은 더 이

상 잔잔하거나 거침이 없어요.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대승기신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이상異相이 없다.’ 이 생각과 저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싫어해’라는 생각은 내용이 다르지만 생각이라는 차원에서 다 같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여기면 좋고 나쁨에 빠지게 되죠. 이 상태(그림32)는 생각에 상이 없는 상태, 생각에 다름이 없음을 파악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고 나쁨도 더 이상 없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그림33) 텅 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크린 밖에 있는 놈을 끌어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그림 34). 이 놈은 스크린 밖에 있는 놈(보이지 않는 주체)입니다. 스크린 안에서 경험되는 내가 아닙니다. 이 상태 자체도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이것마저, ‘보이지 않는 주체’마저도 지금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이 상태(그림33)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상태 속에 아까 그 놈(보이지 않는 주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놈은 개별성이 아니라 이렇게(그림36) 텅 비어있는 주체로서의 느낌, 보는 기능으로서의 스크린 밖에 있는 놈이라는 겁니다. 텅 빔을 경험할 때는 주체도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주체는 같이 경험된다고 했죠. 주체와 대상은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현상계는 항상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비상비비상처

〈그림 37〉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밖에 있는 이 놈이 완전히 투명해져 사라지면 드디어 (그림 37) 있음과 없음을 넘어가게 되는 비상비비상처로 가게 된다는 것이 불교

에서 말하는 팔해탈, 구차제정의 전 과정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라는 것, 텅 빔이 경험되고 무심을 경험한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중 한 곳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비비상처에 오면 곧 바로 멸진정으로 넘어갑니다. 파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근본 원리를 꿰뚫은 것뿐입니다. 비상비비상처에 갔다고 해서 마음이 텅 비어있으면 백치입니다. 부처님은 백치로 40년간 살지 않았 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꿰뚫은 겁니다. 핵심은 ‘그 어떤 마음에도 머물 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處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공처空處, 빈 마음 을 경험하는 곳. 식처識處, 그 앎을 경험하는 곳. 무소유처無所有處, 없 음마저도 뭔가 알아채는 곳, 비상비비상처非相非非相處, 알아채는 그것 마저도 넘어간 곳. 이것도 처處라는 겁니다. 비상비비상처마저도 넘어 가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있음과 없음을 넘어간 근본을 꿰뚫은 것입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이 무심無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 (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불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